한형조 무문관 답방 61

천녀유혼

어느 것이 진짜 천녀일까

달은 하나인데 계곡에 비친 달은 제각각

*오조가 승려에게 물었다. 천녀유혼에 어느 것이 진짜인가.

*나 혜개가 말한다. 만약 여기서 진짜를 깨칠 수 있다면 껍질을 들고 나는 것이 객사를 출입하는 것 같음을 알 것이다. 그럴 깜냥이 아니면 함부로 어지러이 날뛰지 마라. 그 어느날 지수화풍(地水火風)이 흩어질 제, 뜨거운 솥의 게마냥 팔다리를 뒤틀리니. 그때는 내가 말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마라.

*송하여 가로되, "구름 사이의 달은 하나인데, 계곡과 산에 비치는 것은 제각각. 좋고도 좋구나. 하나인가 둘인가."

女離魂:

五祖問僧云,倩女離魂, 那箇是眞底. 無門曰, 若向者裏悟得眞底, 便知出殼入殼如宿旅舍. 其或未然, 切莫亂走. 驀然地水火風一散. 如落湯 蟹, 七手八脚, 那時莫言不道. 頌曰, 雲月是同, 溪山各異. 萬福萬福, 是一是二.

이번의 화두는 천녀유혼이다. 왠 중국영화인가 하실 분들이 많겠다. 왕조현과 장국영이 이승과 저승에서 이루지 못할 사랑을 두고 벌이는 그 드라마를 기억한다. 서극의 환상적인 카메라워크와 SF 효과가 일품이었다.

영화는 중국의 어느 전설에서 모티프를 따왔다. 그렇지만 본 이야기의 줄거리는 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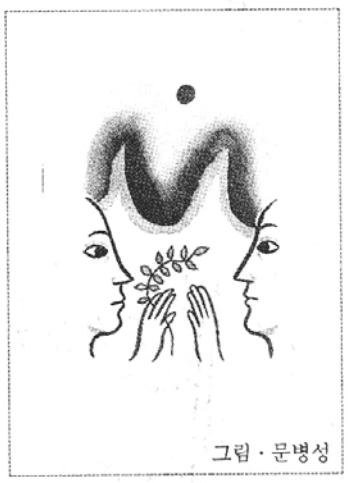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형양 땅에 장감(張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인물이 수려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을 천녀(倩女)라 했다. (천녀란 예쁜 여자라는 뜻이다.) 장감은 가끔 농으로 외조카인 왕주(王宙)에게 천녀를 데려가라는 소리를 했다. 그런데 그 지방의 고관이 그녀의 미모에 반했다. 장감은 전날의 약속을 잊고 천녀를 그에게 시집보내려 했다. 왕주를 연모하던 천녀는 깊은 상심에 빠졌다. 왕주 또한 운명을 한탄하며 모든 것을 잊으려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왕주가 막 배를 타고 떠나는데 저편 언덕에서 천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둘은 함께 손을 잡고 머나먼 촉(蜀)땅으로 도피하여 살았다. 꿈같은 세월을 보내던 어느날 천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나오면서 생긴 마음의 병이라고 했다. 둘은 늦게나마 용서를 빌고 허락을 얻겠다고 다시 고향을 찾았다. 집 근처 나루에 도착한 왕주는 그녀를 배에 남겨 두고 혼자 장감의 집을 찾았다.

왕주가 그간의 정황을 설명하자 장감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게 무슨 소린가. 내 딸은 지금 저 규방에서 오랫동안 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데…"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 왕주였다. "아니, 천녀는 저와 함께 살다가 지금 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감의 식구들은 규방의 천녀에게 이 소동을 전했다. 또 한편 장감은 그녀가 있다는 배로 사람을 보냈다.

배에서 내려 수레를 타고온 천녀가 집안에 들어서고, 병석을 털고 일어난 또 다른 천녀가 마당에서 마주치는 순간, 둘은 거짓말처럼 하나로 합쳐졌다. 장감은 사위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떠난 뒤로 어쩐 일인지 딸아이가 일체 말도 않고 흡사 술 취한 사람처럼 가력이 다 빠져 지냈는데, 이는 아마도 혼백이 떠나버렸기 때문이었던가 보이." 천녀가 말했다. "서방님이 한을 품고 떠나는 것을 차마 견디지 못하고 혼이 그이를 따라 배에 올랐던 듯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나가 된 천녀는 이후 낭군과 함께 오래 오래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이다.

오조(五祖, ?~1104)는 난데없이 이 전설을 꺼내 화두로 던졌다. "다시 합쳐지기 전, 두 천녀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인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이다. "그거야 물론, 사랑하는 낭군을 따라 도망하여 촉땅에서 살던 그 천녀지." 이리 대답했다간 오조의 우악스런 손에 멱살을 잡혔을 것이다. 그렇다고 껍데기만 남은 고향집의 그 천녀가 진짜일 리는 없다.

우리는 또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사람들은 불평할지 모른다. "이제까지 맨 공안이란 것이 하나같이 딜레마 아니면 함정, 또는 덫이었는데 또 그 레파토리냐." 한가한 불평을 늘어놓을 시간이 없다.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면 혜개의 말마따나 죽음이 찾아올 때의 단말마를 감수해야 한다. 사대(四大) 육신(肉身)이 흩어질 때, 낡은 껍데기를 벗고 새로운 껍데기를 향할 그때, 흡사 끓는 솥에 들어간 게처럼 팔다리를 버둥댈 것이니 이를 어찌할 것이냐.

혜개는 그동안 온건하게 충고해왔다. 화두를 깨고 생사의 비밀을 뚫을 때 어떤 축복이 오는지를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겁을 주기로 작정한 듯하다. 이 생의 귀한 인연을 태만과 무지로 흘려보내다간 어떤 지옥을 겪게 되는지를 모골이 송연하도록 섬짓하게 주지시키고 있다.

과연 어느 것이 진짜 천녀인가. 이 물음은 이렇게 번역된다. 지금 여기 있는 네가 진짜냐, 아니면 콩밭으로 마실 가 있는 네가 진짜냐. 외전(外典)에도 비슷한 화두가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마음을 보고 거기 맡기세요"

잭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21

정정진④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번뇌와 무상을 깊이 음미할 수만 있다면 100년을 산 것보다 더욱 가치있다."

다체 무슨 뜻인가? 비록 순간일지라도 삶의 본질을 보고 진실로 충만된 찰나의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가? 또 이 과정에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정한 자유를 증득할 수 있다는 것인가?

자각의 대상들을 등지고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순간이라도 바른 노력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각기관과 마음의 작용을 놓지않고 바른 노력을 실천하며 살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게으른 습관에 젖어있던 적은 없었는가' '타인에게 무엇을 베풀었는가' 등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이처럼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리는 순간 우리는 삶에서의 법칙을 새롭게 볼 수 있다. 그것은 꾸준한 노력이 가져온 것과 적은 노력이 낳은 것을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아잔차스님은 "마음을 챙기는 일을 어느 한 순간이라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얄팍한 앎으로 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마음도 방황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스님은 "그렇다고 이같은 상황을 걱정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마음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수행이다. 마음의 한귀퉁이에서 일어난 것이 무엇이든지, 단지 보고 그것에 맡기면 된다. 그것들을 떨쳐버리겠다는 생각은 필요없다. 그 과정이 지나면 결국 마음은 본래의 모습에 도달해 더이상 선악과 같은 분별심에서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경계에서는 '나'도 없고 '너'도 없으며 '아상(我相)'도 없다. 단지 '거기에 있는 것'일 뿐이다.

> 명상수행 계속 한다고
> 깨닫는것 아니다
> 마음챙김에서 놀라운일 생겨

산책을 할 때는 특별한 용품이 필요하지 않다. 걸어가고 있는 그 곳의 경치를 즐기면 된다.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지각의 대상으로부터 우리 본래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된다. 조용한 곳에서 나만의 사색을 찾고자 인적이 없는 동굴을 찾아갈 필요는 없다.

어느 순간 마음의 균형이 깨지고 의심 등의 감정이 일더라도, 마음에서 생겨나는 그것들을 보기만 하면 된다. 길을 따라 걷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그곳을 피해 돌아가기 보다는 곧장 걸어가 넘어가는 것처럼, '이것만 아니었으면 진즉 지나갔을 것'이라며 장애물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그 여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채 부딪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목적지까지 이 길이 어느정도 남아있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난관을 만나면 그것을 보고 그저 흐르는 대로 놓아두면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변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지나치고 부딪친 것들이 무엇이든지, 집착할 필요가 없다. 마음은 결국 본래의 모습에 도달한다.

수행은 이제 수행이 아니고 노력도 이제 노력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정진하게 되고 실천하게 된다. 시간을 정해놓고 앉지 않아도 된다. 장시간을 앉아서 명상수행을 계속한다고 해서 깨닫는 것은 아니다. 깨달음은 자세와 시간과는 상관없이 마음챙김의 과정에서 생긴다. 수행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것 처럼 평범한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걷거나 앉거나 목욕을 하는 중에도 마음챙김을 계속 해가는 것이다. 놀라운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세간에서도 우리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불교의 수행은 이익을 얻고 선행을 베풀며 선업을 쌓고 통찰력을 얻고자 하는 특정한 목표를 향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확고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일일 뿐이다. 깨달음은 대상, 승패 등에 의해 강요되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숙해지고 마음을 여는 것, 자연의 법칙과 교의를 나누는 것 등을 배우는 것에서 깨달음은 얻어진다"고 말했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70

불교와 수학 65

업과 되먹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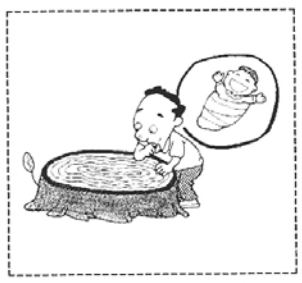
김 용 운

업은 중요한 불교사상의 하나이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조건은 과거의 업의 소치이며, 현재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미래의 업을 정한다'는 생각이다. 눈으로 보는 것, 마음에 느끼는 것 등 정신적 육체적 구체적인 행위 모두가 업의 요소가 된다. 이 생각은 아뢰야식연기에도 있다. 씨로서의 잠재적인 힘이 싹터 활동 에너지가 되어 일상적인 업에 현행(現行·구체화)된다. 씨에서 현행이 발행하고, 또 현행은 즉시 아뢰야식에 심어진다. 또한 그 곳이 미래를 정하는 새로운 업(씨)을 잉태한다. 현재의 자신의 행위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의미도 있다. 이 사실은

과거의 업 → 현재의 업 → 미래의 업, 또는 씨 ↔ 현행

과 같은 관계이다.

카오스(복잡성의 과학) 이론에는 되먹임(feed back)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일이 다음 단계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오늘의 일기 상태의 연장선상에 내일의 일기가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지금의 행위는 그대로 그 다음의 단계를 결정한다. '역사에는 if가 없다'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은 현재의 상황을 결정했음으로 '만일 그때 …했더라면'하는 것은 한낱 넋두리에 불과하다. 인생도 역사와 같이 되먹임의 연속이다. 한편 과거(업)는 부정할 수 없었으나 현재를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있음으로, 결정론은 아니며 누구에게나 미래는 일정하지 않으며 복잡하게 전개되어 나간다.



업 원형론과 같아…긍정적으로 수용

되먹임 지금 일어난일 다음 단계에 영향

필자는 원형론을 주장해 왔다. 태고(太古) 때 처음 사회가 형성되었을 당시의 모든 환경조건을 반영하여 사회(넓게는 민족)의 심성, 즉 원형이 형성된다. 일단 원형이 형성되면 다음은 그 원형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세대의 원형을 만들어 간다. 이 사실은 나무의 나이테에 빗대면 알기 쉽다. 나무를 절단하면 나이테가 여러 개의 동심원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정확한 기하학적인 원은 아니며 때로는 크거나 작고 부자연스러운 곡선일 때도 있다. 그러니 어떤 나무에도 처음에 만들어진 중심(核)이 있으며 다음 세대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큰 원을 그려간다. 우리는 조상의 원형(업)을 안고 새로운 업을 구축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넘기고 있기에 업과 현행(現行)의 관계와도 같다. 개인을 두고 말한다면 나는 부모의 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또한 나 자신이 업을 구축하면서 자식대에 그것을 넘긴다. 그런 뜻에서 원형론과 업사상은 같은 맥락에 있다.

민족사를 원형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원형사관이 있다.

가령 한국민족을 두고 생각한다면, 상징적으로 처음 단군이 이 나라를 건설할 때 한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단군 당시의 원형은 각 시대에 직·간적접으로 영향을 주어 왔다. 오늘을 살고 있는 한국인의 과거의 조상들이 구축해 온 '업(원형)'의 기반 위에 오늘의 업을 꾸미며 다음 세대에 옮기는 것이다. 과거의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원형에 잠재되어 있는 성격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고루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세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미래를 개척해 간다.

원형은 절대 '선'도 '악'도 아니다. 원형은 장점일 수도 또한 단점일 수도 있다. 선악을 정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 행위가 정하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이용하면 어떤 부분도 장점일 수 있고, 소극적으로 펴나가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는 것처럼 어느 민족에게도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윤리의식이 있다. 과거의 업을 안으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펼쳐 가는 일은 오늘을 살고 있는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그런 뜻에서 원형사관은 업사상을 기반에 둔 불교적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업사상을 잘못 생각하면 속된 말로 '모두가 전생의 업 때문에', '전생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기에 오늘이 팔자인가'라는 식의 퇴영적인 운명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불교의 진면목을 적극적인 삶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지시하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 넘겨줄 긍정적인 유산(업)을 구축할 책임을 지며 살고 있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연막 소독 살충기

CARNIVORE

(길이 480mm, 높이 260mm, 폭 130mm, 중량 1.4kg)

카니보 2000 하나면 여름이 편안해진다.

모기 및 모든 해충으로부터 해~방!

⊙ 사찰에 꼭 필요한 상품으로 대만족 확신!
⊙ 방역, 소독 필요시 간편하게 사용가능 (어린이도 조작 가능)

농가, 축사, 여관, 정원, 야외가든, 지하철, 병원, 화장실, 쓰레기장등 소독이 필요한 모든 곳의 전염성균예방

특별보급가 ₩178,000

※ 3회 분할가능
※ 각종 신용카드 장기분할가능

※ 현 금 가 : ₩140,000

· 해충퇴치기 〈안내표시등〉 ₩28,000
※ 별도 판매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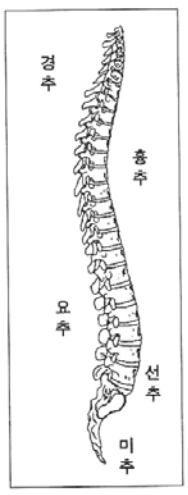
⊙ 연막소독기 구입시 해충퇴치기 무료 사은품 증정!

전국 어느곳이든 배달가능!

보급처: 한마음 ☎ 051)865-1182 하나하나빌리 ♣크로바서비스:080-007-1182

지부장모집

MBC출발 달리는 새아침 김우현회장 활법 6개월간 강좌



경추 1~7번: 두통, 신경질, 불면증, 고혈압, 만성피로, 편두통, 뒷골아픔, 어깨통증, 목덜미가 뻣뻣함

흉추 1~12번: 심장, 폐, 간장, 당뇨, 위장질환, 신장, 불임병

요추 1~5번: 요통, 하지순환불량, 좌골신경통, 하복부통증

선추: 생식기계통, 정력증강

▸특 전

1 법개정으로 누구나 본협회 자격을 취득후 사무실의 평수와 관계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지부를 운영할 수 있음.

2. 교육수료자는 *수료증, 세계공인 활법사, 5단증, 사범자격증, 스포츠 맛사지사, 카이로프락틱사, 운동회복사 자격증*부여

의료선교사 · 물리치료사
침구사 · 대체의학연구자

▸교 육 내 용

1. 활법기초이론 (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 (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맛사지교육 (지압)
4. 카이로프락틱교육 (짝다리교정법,즉시효과)
5. 사지관절교육법
6. 기공술
7. 운동회복법 (저항운동법)
8. 자연건강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혈도자극운동법

▸교 육 안 내

교육기간:5박6일(속성반), 3개월반.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업시작

준비물:
1. 교육비 및 회비2. 사진 3×4:10매
3. 주민등본:1통4. 신청서·협회에 비치됨

※연락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림.

【 특허청등록원 제13235호 】

사회단체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71)55-6461, 859-4156, 011)522-1122

관음출판사

♠ 화제의 신간

알기 쉬운 문답식

관상 수상학 강의

딱한번 보고 사람을 알 수 있는 성공 비지니스의 처세술과 운명학

「知彼知己는 百戰百勝」이란 말도 相對를 알아야만 勝負가 될 수 있다는 말처럼 相學이란 分野가 우리 生活과 얼마나 그 比重이 무거운가 하는 것은 再論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家庭에서는 貴重으로 職場에서는 必世指針書로 젊은이들에게는 社會生活의 必讀 參考書로 餘暇를 善用하여 探讀할만한 敎養書로 一讀을 勸誘하는 바입니다

- 周易通信大院長 梁哲俺

哲學博士 曺誠佑 지음 / 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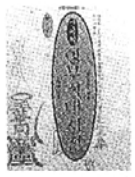
송월스님 著

사주학 핵심비결

지금 이때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이책을 펼쳐 보십시요, 당신의 미래의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易書.

신국판/값20,000원



김백만 편저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팔려고 하는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부적을 집대성 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A5신/양장본/35,000원

申 坪 지음

古典 풍수학 설심부

눈에는, 보고자 하는 뜻이 있고 입에는, 먹고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다. 산천은 풍세(風勢)와 수기(水氣)를 이루어서 대기(大器)를 형성한다.
사람도 여기에서 길리지는 것이니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 하였다.

값18,000원

관음출판사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광성빌딩 전화: 921~8434 팩스: 929~3470